

“반딧불이 · 은하수 가득한 청산도로 밤마실 오세요”



청산도 화랑포항에서 촬영한 은하수

분주한 일상 속 삶의 윤택이 되는 섬, 푸른 바다와 산과 들이 아늑하면서 평온함을 선사하는 청

완도 청산도민박협회 주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개최

청산도 야행·공연·이벤트 등 특별한 여름밤 선물

산도에서 특별한 밤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청산도민박협회(청산휴가) 주관으로 ‘청산도 밤마실’ 행사를 개최한다.

청산도 밤마실은 반딧불이와 은하수 등 밤 풍경을 배경으로 청산도 야행을 비롯하여 공연,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산도만의 특별함을 체험할 수 있게 준비했다.

특히 청산도 야행은 직접 만든 청사초동을 들고 해설사와 함께 청산진성을 탐방하는 체험으로 양일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행사 후에는 서편제 주막에서 밤참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공연은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편제 활영지에서 청산도 구들장 농악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 행사는 서편제길, 도라리 마을 안길, 밤바위 전망대에서 상시 운영하며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시화전으로 특별함을 더한다.

진산리 갯벌에서는 소리쉼터를 상시 운영한다.

소리쉼터는 의자에 앉아 갯벌에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들으면 비쁜 일상과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또한 서편제길에 대형 달 모양의 포토존을 설치하여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청산도에서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라리 마을과 밤바위 주변에서는 하늘을 수놓은 청산도의 밤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반딧불이와 은하수 촬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인증 샷과 청산도 다랭이배미 수맞추기 이벤트를 통해 꾸집한 완도 특산품도 제공되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밤마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청산도민박협회 최민교 회장은 “청산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밤의 감성을 살려 행사를 준비했다.”며 “협회 소속 민박집의 경우 30%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코로나로 인

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시킬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에서는 행사 기간 입도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행사장 내 소독 및 손 세정제 비치, 안전거리 유지, 의료진 대기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산도 배편은 하루에 6회 운행되고 있으며 상세 시간과 요금은 홈페이지(<http://www.csdnonghyup.com>) 참고하거나 청산농협(061-552-9388)으로 문의, 숙박은 청산도민박협회(1588-0766)로 문의하면 된다.

원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특수미 원원종 채종단지 손모내기 실시



장흥군 지난 8일 용산면 상발리 일원에서 특수미 원원종 채종단지 조성

모내기 행사에는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용산농협, 용산면새마을부녀회가 참여했다.

이날 심은 백설찰은 울벼쌀 품종이다.

울벼쌀(진쌀)은 찰벼가 약 80% 정도 익었을 때 수확하여 찌 뒤 현미생제로 도정한 보조식품이다.

불포화지방산, 비타민B1, 식이섬유 등이 들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대장 활동을

돕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설찰은 기본식물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약 500g을 분량받아 원예용 트레이에 육묘하여 튼튼하게 키워낸 순도 높은 건강한 모이다.

용산농협 관계자는 “오늘 장흥군과 농협, 농민이 협력하여 농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퇴화 종자 갱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순도 높은 종자를 통해 고품질의 울벼쌀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먹노린재 예방 및 적기방제 기술지원

영암군은 8일부터 12일까지 친환경단지, 조생종 조기 재배단지 및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전 직원 일제출장을 실시 먹노린재 예방 및 적기방제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월초부터 기온 상승에 따라 먹노린재가 본격적으로 월동처로부터 가로등 불빛이나 옥수수 등에 유인되기 시작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자기는 주변 예방을 강화하여 적기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먹노린재는 6월부터 9월까지 벼 줄기에 구집을 박고 흡즙하여 생육단계별로 잎절단, 분얼억제, 백

수현상 등 벼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특히, 조생종 조기 재배 지역, 야산인근 논, 친환경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박종삼소장은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 연구소와 유인식물(옥수수) 논독식재 및 유인트랩 설치, 유아등 설치 등 친환경적인 먹노린재 방제 방법을 찾기 위해 합동 실증시험 추진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깨끗한 강진호수공원 군민 결의로

수목 정비 및 장미터널 조성은 완료한 강진호수공원이 강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호수공원을 강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를 추진했다.

먼저 호수공원 내에 분산 식재된 수목을 재정비했다. 마로니에 숲길을 조성했으며 무질서하게 식재된 수목들도 일관성 있게 재배치해 공간 활용을 높였다.

특히 호수공원내 장미 800주를 식재해 장미터널 및 장미터널을 조성했다. 장미터널은 공원을 찾은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계절을 대표하는 봄, 여름 풍경으로 호수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저녁 시간에도 안전한 산책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 내 설치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안전한 음식문화개선 실천 정착 위해 캠페인 실시

진도군은 음식문화개선 범 군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

(사)진도관광진흥협의회, (사)한국의식업중앙회 진도군지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이 롤 모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손씻기 철저 ▲털어먹기 용품 제

공 ▲위생복, 위생복,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음식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전달하고 생활방역을 위한 식사문화 에티켓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00㎡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도만의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과 고객 응대 친절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여름철을 대비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선진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함평천지농특산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